



2024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중학생용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2024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

CONTENTS

일러두기	03
자기소개	04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05
활동 메모	06
<hr/>	
01. 기후위기와 환경 재앙	08
02. 특종, 기후위기를 찾아서	10
03. 2050 탄소중립 선언	12
04. 우리나라의 산림	14
05. 산림의 여섯 가지 기능	16
06.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로 지구를 지킨다.	18
07. 숲 가꾸기! 산림도 관리가 필요해	20
08. 온실가스 배출을 잡아라! 산림바이오매스	22
09. 산림을 보호하라! 산림보호구역	24
10. 소개합니다!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한 나무	26
11. 심고 베고 또 심자! 지속가능한 숲	28
12. 산림을 지키는 사람들	30
<hr/>	
VISA (확인서)	33

일 / 러 / 두 / 기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 사용법

- ✓ 2024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은 어린이·청소년 스스로 신문 읽기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소통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워크북입니다. 이 패스포트는 주어진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는 12개의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 묶었습니다.
- ✓ 활동 주제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에 나온 주제를 차례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부터 하면 효과적입니다. **패스포트에 실린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주제를 선택**해서 활동해도 됩니다.
- ✓ 사용할 수 있는 신문은 **2018~2024년 발행된 신문**입니다.
- ✓ 보조자료로 인터넷 뉴스, 서적 등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주제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개별 또는 모둠 모두 가능하지만 개별 활동을 권합니다.
- ✓ 활동 내용을 정리할 때 **볼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연필로 적을 경우라면 뚜렷이 드러나게 필기해야 합니다.
- ✓ 스크랩한 신문 자료가 클 경우, 자료를 접어 패스포트에 붙여도 됩니다.
- ✓ 활동 날짜, 참고한 신문과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 ✓ '나의 활동 메모'(6쪽)는 **활동한 날짜**를 씁니다.
- ✓ 과제를 모두 마치면 뒤쪽에 있는 '비자(visa)' 페이지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2024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는 교과별 수행평가와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활동)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자신의 사진을 직접 붙이거나
캐릭터 그려 넣기

	이름
	학교
	학년/반
	주소
	연락처
	발급일
	활동기간
	서명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 | | | | |
|--|--|---|---|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 |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 |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 |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 | 매일경제
https://www.mk.co.kr |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 |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 |
| 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 |
| 스포츠서울
https://www.sportsseoul.com | 스포츠조선
https://www.sportschosun.com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 |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 | The JoongAng
https://www.joongang.co.kr |
| The Korea Times
https://www.koreatimes.co.kr | 한겨레
https://www.hani.co.kr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 |
|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 | news1 KOREA
https://www.news1.kr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 |
| 江原日報
https://www.kwnews.co.kr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 | 경남신문
https://www.knnews.co.kr | 경남일보
https://www.gnnews.co.kr |
| 경북도민일보
https://www.hidomin.com | 경북매일
https://www.kbmaeil.com | 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 |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 |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 |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 | 대구일보
https://www.idaegu.com |
| 대전일보
https://www.daejonilbo.com | 每日新聞
https://news.imaeil.com |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 | 영남일보
https://www.yeongnam.com |
| 울산매일
https://www.iusm.co.kr | 全羅日報
https://www.jeollailbo.com | 전북도민일보
https://www.domin.co.kr | 全北日報
https://www.jjan.kr |
| 제주일보
https://www.jejunews.com |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 | 중부매일
https://www.jbnews.com | 충부일보
https://www.joongboo.com |
|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 | | | |



나의 활동 메모

참고

- ✓ 활동 순서는 패스포트에 실린 목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활동주제 수는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아래표에서 '확인'은 주제 수행을 마쳤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순번	날 짜	활 동 주 제	한 문 장 소 감	확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후위기와 환경 재앙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장기간 체류하며 지구의 평균 기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늘어나면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열을 잡아두게 되어 지구온난화를 유발합니다.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마지노선'에 도달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기후위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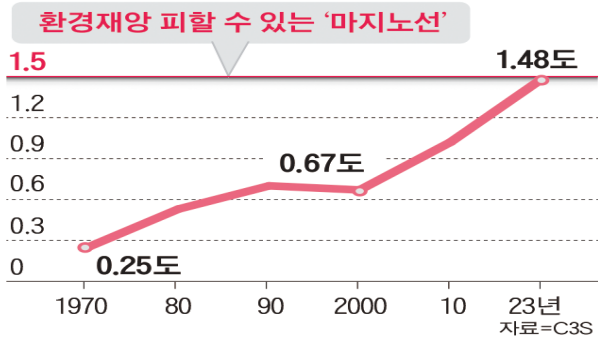
다음 기사를 읽고, 과제를 수행해 보세요.

※ 출처: 조선일보 2024년 1월 11일 14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A) 지구, 올 기온 상승폭 '1.5도 마지노선' 넘을 듯

올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1.5도 상한선'은 지구온난화로 환경 재앙이 닥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인식된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산업화 이전 대비)



9일(현지 시각)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연구소(C3S)는 작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기온보다 1.48도 높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지구는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다.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시 세계 195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

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막자고 했다.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그때까지 누적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2도는 단기간 상승하고 이후엔 4도까지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4도 상승이면 빙하가 급격하게 녹는 등 환경 재앙으로 이어진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8월은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2개월이라고 한다. 작년 남극 바다에 뜬 빙하 면적은 사상 최소를 기록했다. 버제스 코페르니쿠스 부국장은 "기온 상승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태평양 감시 구역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과 2022년 남태평양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한 대규모 수증기 방출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고 했다. 이어 "올 1월부터 따뜻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1년간 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정한(상승 제한 폭인) 1.5도 기준이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5도 마지노선 붕괴'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다. 영국 기상청도 지난달 발표한 지구 기온 전망에서 "올해 지구 평균 기온이 일시적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유명 기후 학자인 제임스 헨슨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4일 "5월 기준 '연평균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 1.7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유미 기자

(A)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써보세요.

기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Blank area for summarizing the article content.

일상에서 위와 같은 기후 변화를 느꼈던 경험을 써보세요.

Blank area for writing about personal experiences with climate change.

아래 <활동 방법>을 참고하여 을 참고하여 환경 재앙을 경고하는 SNS 글을 써보세요.

- 활동 방법**
- 인터넷 신문이나 신문 기사에서 환경 재앙에 관한 이미지를 스크랩하세요.
 - 아래 SNS 활동란에 이미지를 붙이세요.
 - 친구들에게 환경 위기를 알리는 글을 써보세요.

Username

2

♥ 10 540

Show all comments (301)

2 HOURS AGO



2. 특종, 기후위기를 찾아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물 부족, 홍수, 태풍 등 극단적인 기후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로 발전하였는데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 살펴볼까요?

다음 기사를 읽고, 과제를 수행해 보세요.

※ 출처: 서울경제 2024년 2월 26일 인터넷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A)

〈자료 1〉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남극 해빙 규모가 3년 연속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인용한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SIDC)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남극의 5일간 평균 해빙 면적은 199만km²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기준 5일간 평균 해빙 면적은 198만km²였다. 이는 현재까지 역대 최저치인 지난해의 178만km²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해 기록 역시 2022년 종전 기록을 갱신했다.

일반적으로 남반구 해빙은 겨울이 끝나가는 9월에 최고조에 달한 뒤 여름이 끝나가는 2~3월에는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다. 따라서 현재 수준이 올해 최저치일지 여부는 1~2주 이상이

〈자료 2〉 해빙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대기로 반사하고 인근 물 온도를 식혀주는 등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해빙이 사라지면 바다는 빛을 더 많이 흡수하고 따뜻해진 바다는 더 많은 얼음을 녹인다. 남극 해빙 두께가 얇아지는 것도 문제다. 여름에 녹았다가 겨울에 다시 언 해빙은 종전보다 더 얇을 가능성이 큰데, 해빙은 얇을수록 더 빨리 녹는다. NSIDC의 수석 연구원인 윌트 마이어는 매년 여름 남극의 대부분 해빙이 완전히 녹기 때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은 1979년 위성 관측 이래 여름철 해빙 면적이 200만 km² 아래로 떨어진 적은 2022년 이전엔 한 번도 없었다며 지난 3년간 해빙 면적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남극이 급격한 '임계 변화'(critical transition)를 겪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대의 해빙 과학자인 윌 흡스는 "최근 3년이 역대 기록상 가장 낮은 해빙 면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빙의 감소는 또 다른 해빙이 녹는 것을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문에 얼음의 두께가 1~2m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전 겨울인 지난해 9월에도 역대 동 기간 대비 가장 낮은 해빙 면적을 기록했다며, 많은 지역의 얼음이 평균적으로 얇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변수연 기자

신문 기사를 읽고, A에 적절한 제목을 써보세요.

Blank space for writing a title.

〈자료2〉에서 밑줄 친 '해빙'이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써보세요.

Blank space for writing the effect of ice melt on Earth's temperature.

옆면의 기사(자료)를 뉴스 속보 보도문으로 작성해 보세요.

Blank space for writing a news brief. Includes a small icon of a person and the text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활동 순서를 참고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세요.

활동 순서

1. 〈자료2〉를 읽는다.
2. 〈자료2〉를 읽고, 떠오르는 질문이나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아래에 서술한다.
3. 주제에 대해 인터넷 검색, 문헌 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4. 자료를 아래 보고서에 정리한다.

주 제:

Two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es for writing a topic.

Large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 report. Includes the text "보고서 작성하는 공간" (Space for writing the report).



3. 2050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50 탄소중립 선언'의 내용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 '2050 탄소중립 선언'의 내용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주제: 2050 탄소중립 선언 실천을 위한 노력

👉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주체는?

✎ 신문 기사를 읽고,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계획이나 노력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 일상에서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3가지만 써보세요.

-

-

-

✎ 2050 탄소중립 실천 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 티셔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티셔츠의 앞면과 뒷면을 디자인해 보세요.

✎ <'2050 탄소중립' 실천 운동 티셔츠에 포함할 요소>

1. (필수) '2050 탄소중립'을 상징하는 이미지나 그림
 2. (필수) '2050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문구
 3. (선택) 협찬, 브랜드명, 단체명, 디자이너 사인 등
- * 3번 '선택' 사항은 제작자의 개성과 판단에 따라 티셔츠에 포함하지 않거나 새로운 요소로 대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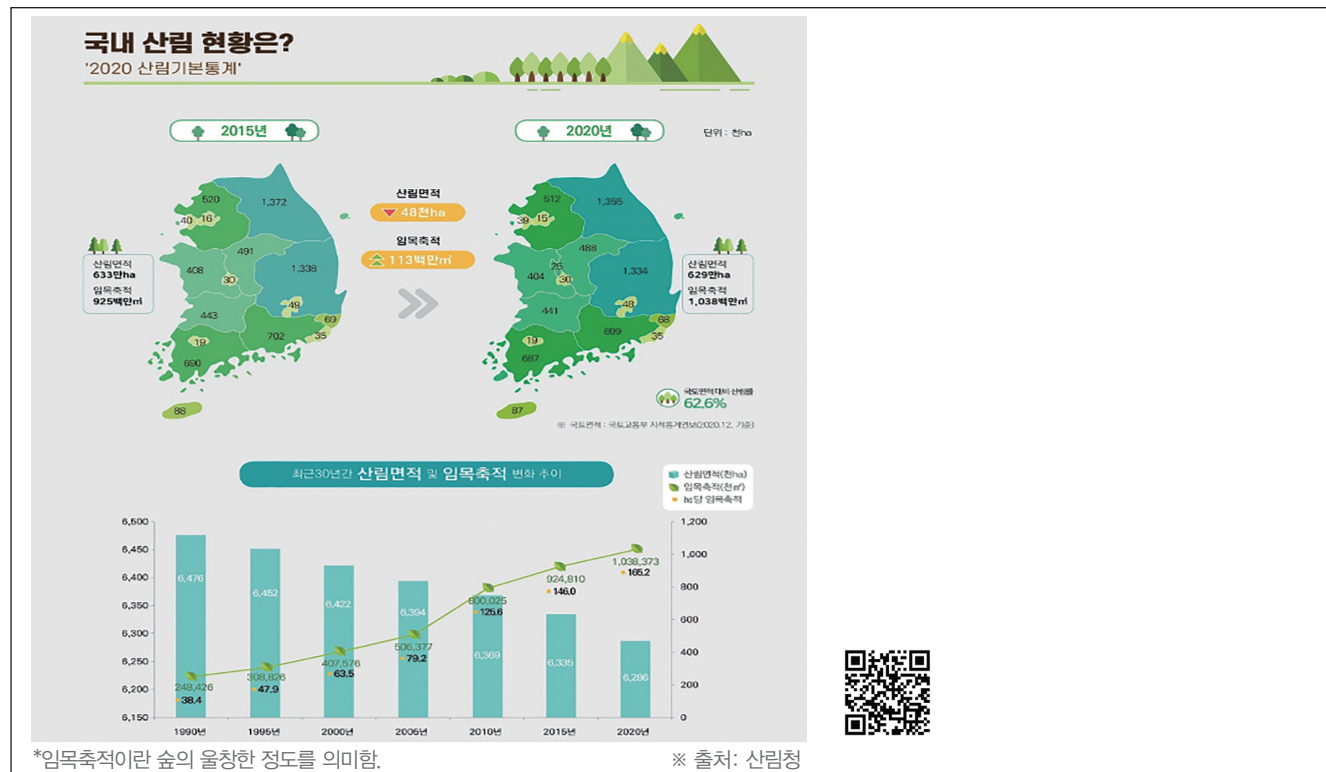




4. 우리나라의 산림

매년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산림을 보호·육성하고, 산림 자원의 증식 및 임산물의 이용 개발 그리고 산림 경영의 연구와 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의 산림 관리뿐만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선언 실천 및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극복에도 앞장서고 있어요. 이번 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산림 관리에 대해 살펴볼까요?

다음은 산림청에서 발표한 '국내 산림 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에 대한 내용으로 간단한 기사문을 작성해 보세요.(QR코드에서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사문 작성하는 곳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과제를 수행해 보세요.

※ 출처: 매일경제 2023년 7월 27일 B1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고령화 산림, 젊게 바꾼다 ... 국내 온실가스 21% 흡수

산림청,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선언

산림청에 올해는 특별한 해다. 국토녹화(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를 시작한 지 5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여서다. 이에 맞춰 산림청은 올해를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언했다.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는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중심으로 한 '산림 100년 비전'도 제시했다.

산림청이 노리고 있는 도약의 첫 단추는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Net-Zero) 실현과 녹색성장'이다. 이를 위해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부국인 우리나라의 치산 국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K-포레스트(K-FOREST)' 기반 다기에 올인하고 있다. 산림은 2027년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를 담당하게 되면서 기후위기 시대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남 청장은 "지난 50년은 국민과 함께 녹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워진 산림으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심은 나무를 썩을 때까지 보존하는 게 아니라 목

재로 가치가 있을 때 사용하고 다시 심어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재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2009년 '목재 우선 정책'(Wood First Act)을 채택해 공공 건축물 신축 시 목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2017년부터 '목재 혁신운동'을 통해 건축자재로서 보조금 지급 등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 신축 공공 건축물 중 50% 이상에 목재를 이용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2010년 공공 건물에서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 건축물 목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목재 자급률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2021년 기준 목재 자급률이 41.8%가 됐다. 2000년(18.9%)에 비해 무려 22.9%포인트나 증가했다고 한다.

나무를 심어 벌기령(나무를 벨 나이)이

되면 벌채해서 이용하고 새로 조림하는 산림 자원 순환 경영이 자리를 잡지 못한 결과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연간 국내 수요의 85%에 해당하는 목재를 7조원어치나 수입하고 있다. 국내에는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 30년생 이상(4~6영급)이 72%를 차지하는데도 수입 목재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목재 자원 활용 면에서 따져보자면 한국은 산림 후진국이나 다름없다. '일본은 산림을 업으로 보았고, 우리는 자연으로 보았다'는 자조 섞인 말이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윤성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우리나라 산림은 1990년 이후 조림이 급감하고 나이 든 숲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청년기 숲'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나무가 노령화되면 임목 축적 증가율이 둔화하고 탄소 흡수·저장량도 줄어 제때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략)...



조한필 기자

신문 기사에서 소개한 선진국의 목재 이용 현황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세요.

국가	목재 이용 현황

기사를 읽고, 산림청이 추진하는 '선진국형 산림 관리 경영'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Blank space for writing an article about the 'Advanced Country Forest Management'.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진국형 산림 관리 경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세요.

Blank space for writing an article about 'Advanced Country Forest Management' for carbon neutrality.



5. 산림의 여섯 가지 기능

숲이 없다는 상상을 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오면 산의 흙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오고, 숲속의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책상, 연필, 벤치도 플라스틱이나 철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나무가 없는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공간이 삭막해지지 않을까요? 평소에는 나무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알고 보면 나무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과제를 수행해 보세요.

출처: 연합뉴스 2020년 12월 12일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아낌없이 주는 숲’ 산림 공익가치 221조원... 국민 1인당 428만원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1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 조사인 2014년 기준 평가액 126조원(국민 1인당 249만원)보다 95조원(76%)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1천893조원의 11.7%에 해당하며, 농림어업 총생산(34조5천억원)의 6.4배,

임업 총생산(2조4천억원)의 92.6배, 산림청 예산(2조원)의 108배에 달한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75조6천억원으로 34.2%를 차지했다. 산림 경관 제공 기능 28조4천억원(12.8%), 토사 유출방지 기능 23조5천억원(10.6%), 산림휴양 기능 18조4천억원(8.3%), 수원함양 기능 18조3천억원(8.3%) 순이다. 그 외 산림 정수 기능 13조6천억원(6.1%), 산소생산기능

13조1천억원(5.9%), 생물 다양성 보전 기능 10조2천억원(4.6%), 토사 붕괴방지 기능 8조1천억원(3.7%), 대기 질 개선 기능 5조9천억원(2.7%), 산림 치유 기능 5조2천억원(2.3%), 열섬 완화 기능 8천억원(0.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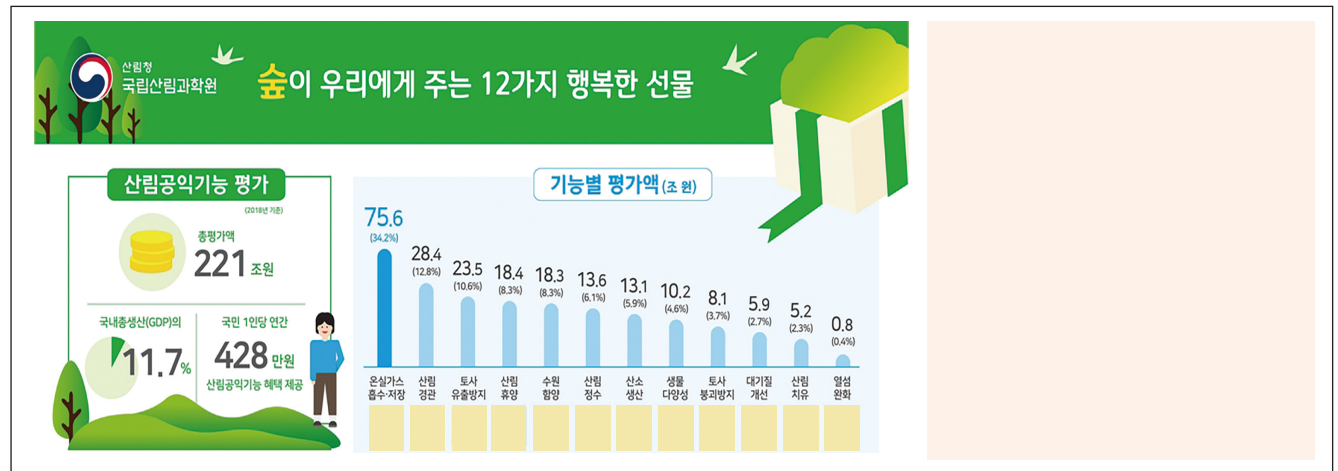


유익주 기자

기사의 핵심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보세요.

Blank lines for summarizing the article's main points.

아래는 기사에 삽입된 이미지입니다. 기사에 제시된 숲의 기능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과제를 수행해 보세요.

출처: 뉴스1 2014년 11월 14일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산림청, 전국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인터넷으로 무료 제공”

산림청은 산림의 기능을 유형별로 구분한 ‘전국 산림기능구분도’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림기능구분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등이 산림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다. 산주가 내 산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사업 등 관리방법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 기능은

△수원함양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목재생산 △산림휴양 △생활환경보전 등 6개로 구분돼 있다. 전국의 산림 기능 구분 결과 목재생산기능이 34%로 가장 많고, 자연환경보전기능 22%, 수원함양기능 15%, 산림휴양기능 9% 등 순이다. 산림청은 전국의 산림을 9만 6000개의 유역단위로 구분하고 지리적 여건과

스텝(GIS) 공간정보 분석과 산림기능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산림 기능구분 지도를 작성했다.

산림기능구분도는 산림청 공간정보서비스(<http://fgis.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수 기자

위 제목을 토대로 나만의 제목을 써보세요.

Blank space for writing a new title based on the article.

우리나라 산림의 6가지 기능을 그래프로 만들어 본 후, 앞에서 정리한 ‘숲이 주는 12가지 행복한 선물’을 산림의 여섯 가지 기능으로 분류해 보세요.

산림의 6가지 기능 통계(그래프)		산림의 6가지 기능	숲의 열두 가지 행복한 선물
환경적 기능	자연 환경 보전	· 산림 경관 제공 ·	
	산림 재해 방지	·	
	수원 함양	· · 산림 정수	
사회적 기능	생활환경 보전	· · 산소 생산 ·	
	산림 휴양	· 산림 휴양 기능 ·	
경제적 기능	목재 생산 (산림생산순환)	나무 생산 및 순환	

우리나라 산림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2014년과 2024년의 전국 산림기능구분도를 비교해 보세요.





6.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로 지구를 지킨다

공기 중에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여 지구온난화가 발생합니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무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화석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나무는 탄소를 어떻게 흡수하고 저장할까요? 그 양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 기사를 읽고, 과제를 수행해 보세요.

※ 출처: 뉴스1 2024년 1월 1일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제주, 2년간 나무 260만그루 심었더니 탄소 1만1357톤 흡수

〈자료1〉

제주도가 지난 2년간 26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1만1357톤 흡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지난 해까지 2년간 26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 1만1357톤, 승용차 4732대 배출가스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도민이 행복한 제주숲만들기' 6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매년 12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 도심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5년동안 600만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이산화탄소 2만 6100톤 흡수(연간 5220톤), 승용차 1만875대(연간 2175대)의 배출가스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승남 기자



〈자료2〉 산림청 홍보자료

Q. 산림은 탄소를 어디에 저장하나요?

- 흡수**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뒤, 산소를 내보내고 줄기, 가지, 잎(지상부 바이오매스) 및 뿌리(지하부 바이오매스)에 탄소를 저장합니다.
- 저장** 줄기, 가지, 잎에 저장된 탄소는 낙엽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도 하고 일부는 토양에 저장됩니다. 한편 수확된 목재는 건축물, 가구 등의 재료로 이용됨으로써 탄소를 계속해서 저장합니다.
- 배출** 산불로 인해 나무가 불에 타거나 숲 가꾸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의 분해과정에서도 저장된 탄소가 배출됩니다. 부산물은 목재펠릿 등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순환** 배출된 탄소는 산림이 성장하면서 다시 흡수하게 되므로 산림을 통해 탄소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료1〉을 읽고 다음 표를 활용하여 요약해 보세요.

기사 제목	
내용 요약	

수종별 탄소흡수량을 참고하여 우리 학교 나무들의 탄소흡수량을 계산해 보세요.(QR코드에서 자료를 확인합니다.)

수종별 탄소흡수량	우리 학교 나무들의 탄소흡수량		
	나무 이름	그루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톤

산림의 탄소 순환 과정을 담은 기사를 스크랩해 보세요

〈참고 기사〉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나무는 어떻게 탄소를 흡수·저장할까요? 기사를 참고하여 다음 그림의 빈칸에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 보세요.



산림 바이오매스: 목질계 바이오매스(에너지원)을 가리키며, 산림에서 발생한 산물 중에서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나무, 나뭇가지, 단목 등의 부산물, 건설 폐목재, 제재공장 부산물 등을 말한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이다.



7. 숲 가꾸기! 산림도 관리가 필요해

산림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1992년 세계 161개국 정상이 브라질 리우에 모여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에 합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을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증진시켜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림을 관리해야 우리 산림이 지속가능할까요?

※ 출처: 경향신문 2020년 11월 23일 25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숲의 미래를 결정하는 숲 가꾸기

우리나라 숲 가꾸기는 2000년대 초반 숲을 가꾸는 방법과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부터 활발히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5년생 잣나무림에서 생육공간 확보를 위한 솎아베기 이후 나무의 지름 생장이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곳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가지치기를 진행하면 나무의 주간에 옹이가 없어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숲 가꾸기는 각종 재해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숲 가

꾸기를 통해 나무들 사이에 적절한 밀도를 조정해주면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을 막아줘 대형 산불 발생 확률을 낮춰 준다. 아울러 폭우 시 나무들 사이사이 틈을 통해 토양 속으로 빗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산사태도 예방할 수 있다. 나무의 수관은 우산같은 역할을 하므로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빽빽한 숲은 빗물이 땅속으로 저장되기 전 수관에 차단돼 빗물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재해 발생률을 높인다.

숲 가꾸기를 하면 산림의 탄소흡수능력도 증진된다. 산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

소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을 갖는데, 숲 가꾸기를 시행한 산림과 그렇지 않은 산림의 탄소 저장량은 최대 3.5배까지 차이가 났다.

숲은 무작정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건강한 숲을 만들려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어낼 때까지 잘 관리해야 한다.

정도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기사를 참고하여 숲을 가꾸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

숲 가꾸기	이유
1. 솎아베기	나무의 생장 공간이 확보되어 나무의 지름이 3배 이상 증가한다.
2.	
3.	
4.	
5.	
6.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기사를 참고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산림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서술해 보세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필요성과 방법

다음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과제를 수행해 보세요.

스크랩할 기사	
제목	탄소 흡수효율 가장 높은 지역은...강원도 아닌 '이곳'
신문	서울경제, 2023년 9월 28일
기자	김윤수 기자
URL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UWS9BP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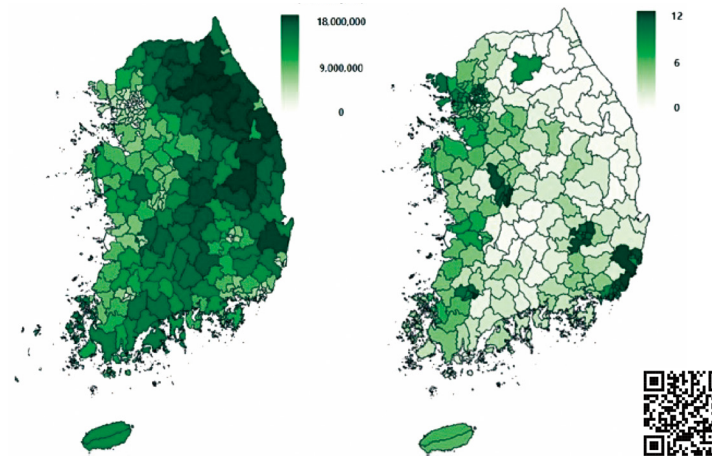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신문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산림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세요.

다음은 신문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입니다. 지도를 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산림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서술해 보세요.(QR코드에서 자료를 확인합니다.)



2020년 연간 기준 250개 지자체별 산림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왼쪽)과 면적당 흡수량 분포. 흡수량은 홍천군, 인제군, 삼척시 등 강원과 경북 지역이 많지만, 흡수효율을 가능하는 면적당 흡수량은 서울 성북구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9. 산림을 보호하라! 산림보호구역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자는 취지로 만든 여러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통해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까요?

아래 기사는 '산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중 하나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고 관련 활동을 해 보세요.

※ 출처: 강원도민일보 2023년 9월 28일 4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산림청, DMZ·홍천·인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026ha 확대

북부산림청장(청장 임하수)이 산림 내 식물 유전자와 종, 생태계 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공간으로, 북부청은 DMZ·민북지역, 홍천 계방산, 인제 방태산 등 8만6000ha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96배다.

최근 확대된 보호구역 대상지는 철원군 민북지역, 인제·홍천군 고산침엽수지대 등의 국유림이다. 이곳은 분비나무, 주목 등의 멸종위기 고산침엽수종, 지리대사초, 왕둥굴레 등의 희귀·특산종이 다수 분포하는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보호구역 확대는 범지구적 기후변화로 위협 받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

되고 있다. 임하수 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식물 유전자원과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며 "보호구역 확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기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뜻을 써보세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대상지에 대해 써보세요.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대상지로 확대 지정된 곳:

- 지정 이유:

보호구역의 종류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외에 네 개가 더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나머지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보호구역명	정의

아래 기사에는 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잘 읽어보고, '산림보호구역, 이 행위는 안 됩니다!'를 주제로 공익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 출처: 경기일보 2023년 4월 26일 7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산나물 좀 캔다고 문제 되나요?"...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극성

(중략) 최근 봄철을 맞아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객이 늘면서 경기지역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 통제구역을 들어오면서 삼림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사유림에서 무단 채취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날 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가 매년 1천건 가까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특별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 총 815건이 적발됐다. 그중 336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됐고 426건에 대해서는 약 5천4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매년 봄철마다 상춘객과 등산객들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가면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림 보호구역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가거나, 담배꽂이를 내버리고 가는 사람들로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다.

(후략)



오민주 기자

포스터 들어가는 곳



10. 소개합니다!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한 나무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신문을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한 나무 이야기를 알아보까요?

아래 기사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은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고, 관련 활동을 해 보세요.

※ 출처: 세계일보 2021년 5월 14일 A12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기사 제목

(중략) '한국을 대표하는 소나무 30년생 숲 1ha는 매년 승용차 5.7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런 계산은 어떻게 나왔을까. 정부는 온실가스 흡수 기능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만든다.

산림부문을 담당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 참나무 등 주요 8개 수종의 생장 정보와 국제기준(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근거해 표준 탄소 흡수량을 산정한다.

가장 최신 버전은 2019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 변경에 따라 탄소전환계수

를 현행화해 다시 도출한 것이다. 산림청이 올해 1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안'도 이를 근거로 한다.

숲의 이산화탄소(CO₂) 흡수량은 수종별로, 임령별로 다르다. 흡수량이 가장 많은 나무는 상수리나무다. 1ha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보면 상수리나무 20년생은 연간 15.9t으로 주요 8개 수종 중 가장 많다. 상수리나무 10년생 흡수량은 11.2t으로 잣나무 20년생 흡수량(11.8t)과 맞먹는다.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임령 30년 이전에 가장 높았다. 특히 중부지방 소나무를 제외한 모든 수종에서 임령 20년일 때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산림 1ha 기준 연간 흡수량은 20년생 강원지방 소나무 10.1t, 잣나무 11.8t, 낙엽송 10.5t, 리기다소나무 13.9t, 편백나무 8.8t, 신갈나무 15t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 소나무는 25년생일 때(15.8t)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가장 많았다.

1t의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데 필요한 나무는 상수리나무 4그루, 신갈나무 5그루, 강원지방 소나무·잣나무·낙엽송 등 6그루로, 활엽수림(신갈나무·상수리나무)이 한 그루당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김희원 기자



기사 중 밑줄 친 부분을 그래프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프에 적절한 '제목'도 붙여보세요.

그래프 그리는 곳

위 기사를 비롯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은 나무에 대한 다른 기사를 더 찾아보고, 아래 표를 작성해 보세요.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한 나무		
나무 이름	소개 및 특징	나무 얼굴(생김새)

기사를 읽으며 새로 알게 된 어휘를 고르고, 그 뜻을 써보세요.

-
-
-

기사를 천천히 읽어본 후 여러분이 편집기자 입장이 되어 빈칸에 들어갈 기사 제목을 붙여보세요. 참고로 15자 이내로 간결하게 핵심 메시지를 담되, 적절한 선에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을 고민해 보세요.

기사 제목



11. 심고 베고 또 심자! 지속가능한 숲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산림의 사회·경제적인 효용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것을 넘어 오래된 수종을 베어 산림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알아보까요?

두 기사는 '조림 → 숲 가꾸기'에 이어 '목재수확 → 재조림 및 목재활용' 등 '산림순환경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고 관련 활동을 해 보세요.

※ 출처: 한국경제 2023년 7월 4일 C1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출처: 국민일보 2022년 8월 1일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나무 심고 가꾸기론 한계... 산업화로 도약 시기 맞았다

(중략) 우리나라는 대규모 조림으로 산림녹화에 성공했지만 30년생 이하 산림은 18%에 불과하고, 70% 이상이 31~50년생인 불균형한 구조를 갖고 있다.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25년생 전후를 정점으로 기능이 떨어지며, 대규모 산림의 고령화 추세는 오히려 탄소중립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적극적 산림경영 없는 상태로 고령화 진행시 현재 4100만tCO₂인 탄소흡수량이 2050년이 되면 1390만tCO₂로 현재의 33% 수준까지 감소한다. (중략) 국내 산림 중 순환경영이 가능한 규모는 전체 산림 자원의 약 40%나 된다. 총

입목축적(10억m³) 및 지속가능생산 주기(50년)를 고려하면, 연간 800만m³의 국산목재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략) 그동안 심은 나무를 베을때까지 보존하는 게 아니라 목재로 가치가 있을때 사용하고 다시 심어 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나무를 심고-가꾸어-활용하는 '산림순환경영'을 통해 산림산업과 목재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경제임업을 구축해야 할 시기다.



임호범 기자

탄소중립과 함께 떠오른 산림경영

(중략)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지만 저장하면서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 벌채 후 가꾸, 종이, 위생용품, 건축구조물 등으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산림에 저장된 탄소를 목제품 안에 저장함으로써 탄소 저감에 도움을 준다. 수확된 목재에 저장된 탄소의 양은 건조된 목재 무게의 절반 정도다. 1m³의 목재를 이용해 만든 제품을 사용하면 917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산림에서 목제품을 통한 탄소 저감이 특히 필요한 시기는 임목 생장량이 감소할 때다. 임목의 연간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미한다. 기존 임목을 수확해 어린 나무로 바꾸면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량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탄소 저장량이 손실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수확한 임목을 제대로 활용해 탄소 저장량 손실을 보전하는 전략이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된다. 목재는 건축 원자재 등으로 이용하면 더 오랫동안 목재 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목재 자재는 콘크리트나 철재와 같이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배출집약적 원자재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탄소 배출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효과도 낸다. (후략)



문정임 기자

두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각각 요약해 보세요.

나무 심고 가꾸기론 한계...산업화로 도약 시기 맞았다

탄소중립과 함께 떠오른 산림경영

Blank box for summarizing the first article.

Blank box for summarizing the second article.

아래 기사는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삼나무'를 심고 가꾸며 활용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비롯해 앞면에 나온 두 기사 그리고 '참고 자료(QR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산림순환경영'을 인포그래픽(정보를 시각화해 표현한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 참고 자료: 산림청 유튜브 '나물라 패밀리'의 '산림경영'편



※ 출처: 전자신문 2023년 10월 5일 20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삼나무 활용 선순환 생태계 구축... 임도 활용 지역경제 살리고 청사 건물까지 '우뚛'

(중략) 후쿠오카공항에서 목적지인 미야자키현까지 차량으로 4시간 정도 이동하는 내내 하늘로 쭉 뻗은 삼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삼나무는 연평균기온 12~14℃, 강수량 3000mm 이상의 계곡에서 잘 자란다. 삼나무는 높이 40m, 지름 1~2m에 달한다. 웅장한 크기에 해충이나 병균에도 강해 일본에선 오래 전부터 집을 짓거나 다양한 생활용품 제작에 삼나무를 활용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벌목하지 않는다. 철저한 계획에 따라 구역 확정과 벌목이 이뤄지고 곧바로 다시 나무를 심는다. 벌목-재조림의 체계적인 선순환 구조는 공기 질 향상과 더불어 산림의 경제적 활용 가치를 극대화했다.

목재이용에 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등으로 쌓아온 다양한 노하우를 수많은 현장에 적용한다. 센터는 건물 자체도 삼나무를 활용해 만들었다. 내부에 들어서면 삼나무 특유의 은은한 향이 반겨준다.

시유림 활용 목구조 청사 구현 고바야시시

(중략) 미야자키현의 작은 도시 고바야시시는 시유림의 나무를 활용해 목구조의 신청사를 만들었다. 일본에서도 드문 대규모 목구조의 3층 건물로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주로 활용했다.

목재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신청사를 나무로 만들기로 결정한 후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5억5000만엔(약 324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다.

(중략) 건물 담당자는 안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화재 등에 대비한 대책은 물론 내진도 기준의 1.5배를 적용했다. 나무로 만든 건물이지만 앞으로 100년 이상 시민을 위한 청사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핏줄, 임도

일본이 목재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었던 기반 중 하나는 임도다. 임도는 산림의 관리를 위해 만든 도로다. 일본인은 산림산업화를 위해 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벌목을 위한 다양한 장비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돕고 생산제품 이동도 수월하다. 벌목 이후 재조림 등 나무심기를 실현할 때도 임도의 활용성은 대단하다.

(중략) 일본인은 임도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간주한다. 실제 규슈산맥의 정중앙에 위치한 작은 마을 모로즈카는 임도 43노선 200km를 유지관리하며 산림산업화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마을의 95%는 산림으로 평지가 적고 임업이 주업이다. 임업 발전을 위해 보육해온 산림이 성숙하고, 벌기를 맞은 목재에 어떻게 부가가치를 부여할지 매년 고민하고 실행한다.

(후략)



양승민 기자

인포그래픽 그리는 곳



12. 산림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무와 숲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겨 봅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일상에서 산림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봅시다.

✎ 신문에는 직·간접적으로 산림을 지키고 있는 직업인과 관련한 기사도 많이 실립니다. 산림과 함께하고, 산림을 지키는 일을 하는 직업인 인터뷰나 정보성 기사를 찾아 스크랩해 보세요.

예) 나무의사, 전국산불재난특수진화대, 수목치료기술자, 산림기사 등

✎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 기사에 나온 직업인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래 빈칸을 채워보세요.

직업인명	직업인이 하는 일	직업인이 되는 방법

✎ 직업인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써보세요.

✎ 우리 역시 일상에서 산림을 지키는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인터넷 등에서 다른 정보를 더 찾아본 후 '일상 속 산림 지킴이가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정보성 기사를 써보세요. 기사가 들어가는 신문 제목을 쓰고, 가능하다면 기사 내용과 관련한 이미지(사진 또는 그림)도 넣어보세요.

- 정부, 기업,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나무 심기 운동에 참여해요!
- 산불 예방, 산림 훼손 방지 등으로 산림을 보호해요!
- 기념일에 내(가족) 나무를 심어요!

신문 제목 쓰는 곳

기사문 작성하는 곳

VISA

축하합니다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위 학생은 2024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
활동 주제를 수행했습니다.

담당교사(또는 부모님) 서명 _____

증명

한국신문협회는 2024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정우현



MEMO 

Lined writing area for page 34.

MEMO 

Lined writing area for page 35.



MEMO 

Lined writing area for page 36

MEMO 

Lined writing area for page 37

발행일 | 2024년 6월 1일

지은이 | 홍근태 인하대사범대부속중학교 교사
최지성 동북중학교 교사
김청연 전 한겨레 매거진 랩팀 기자

발행인 | 임채청

편집인 | 정우현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신문협회

전화 | 02-733-2251~2

팩스 | 02-720-3291

홈페이지 | www.presskorea.or.kr

주최 |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후원 |  산림청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워크북)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